



# 이젠 꿈의 무대에서 골

### 박지성, 5일 UEFA 챔피언스리그 AS 로마전 출전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이번에 '꿈의 무대'에 선다.

맨유는 5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이탈리아 프로 축구 1부리그(세리에 A) 강호 AS 로마와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1998~1999시즌 이후 8년 만에 '트레블'(정규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3관왕)을 노리는 맨유로서는 이번 로마 원정경기를 결코 놓칠 수 없다.

박지성은 지난달 8일 릴(프랑스)과 16강 2차전에 출전,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4시즌 연속 '별들의 향연'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섰다. 하지만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팀 내 '분압'으로 릴 전이 유일했을 만큼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젠 사정이 다르다. 박지성은 올 시즌에 정규리그 14경기만 출전하고도 5골 2도움을 올릴 만큼 그동안 감춰왔던 공격 본능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다.

주전 공격수들의 체력 부담도 박지성의 중용 분위기에 힘을 실어준다.

게다가 맨유로서는 게리 네빌과 미카엘 실베스트르에 이어 블레이크에서 중앙수비수 네만자 비디치마저 어깨를 다치며 최고한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 수비라인 구성이 쉽지 않다는 것도 불안요소 중 하나다.

강철 체력의 멀티 플레이어 박지성에게 다시 한번 기대가 모이고 있는 이유다.

/박진호기자 lucky@kwangju.co.kr

## 무너진 '세리꿈'

### 나비스코챔피언십 10위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으로 '명예의 전당' 입회를 자축하려던 박세리(30·CJ)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올해 연말 명예의 전당 입회식을 가질 예정인 박세리는 2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 미션힐스골프장(파72·6천67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5오버파 77타로 크게 부진, 공동 10위(1오버파 289타)에 그쳤다.

우승컵은 '싸움닭' 모건 프레스(미국)에게 돌아갔다. 공동 9위로 출발한 프레스는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잡아내는 깔끔한 경기를 펼친 끝에 4라운드 합계 3언더파 285타로 정상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앗! 너무 높이 올렸다...미안해! 한국이 2-1로 승리했다.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 남북대결에서 한국의 김민우(왼쪽)가 걸어낸 볼이 북한 강철룡의 머리에 맞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연합뉴스

## 해남고 우승

### 중별탁구선수권 여고부

해남고등학교가 제53회 전국남녀중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해남고는 2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명지고를 3-2로 꺾고 우승했다. 이날 4단식 1복식으로 진행된 결승에서 해남고는 김한아(3년)와 최지현(1년)이 각각 단식에서 승리, 승기를 잡았으나 복식에서 패하고 이어 채유나(1년)가 단식에서 패해 2-2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마지막 게임에 나선 최지현(1년)이 승리를 따내 패권을 차지했다.

남자 중학부에서는 조경환·이성배(광양중동중 2년)가 이승준·함소리(경기내동중)에게 2-3으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대통령기 볼링 광주서 열린다

### 6일부터 18일까지

### 텐핀볼링장 등 4곳서

제22회 대통령기 시도대학 볼링대회가 광주 텐핀볼링장 등 4개 볼링장에서 6~18일까지 12일간 열린다.

대한볼링협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와 MBC,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대회는 16개 시도에서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시니어부등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초·중등부와 시니어부는 광주 연아볼링장(7~13일), 고등부 광주 ABC볼링

장(13~18일), 대학부 광주 텐핀볼링장(6~11일), 일반부는 광주ABC볼링장(6~12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5인조전과 시니어부 3인조전에 참가한 시도에 한해 금메달 획득으로 종합우승시도를 결정하게 돼 시·도간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조종국(48) 광주시볼링협회 부회장은 "광주에서 1년중 가장 큰 대회인 대통령배 대회를 치르게 돼 기쁘다"며 "완벽한 준비를 통해 각 시도에서 오는 선수들이 풀편 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일(화)

▲메이저리그<볼티모어-미네소타>(07 :

55·Xports)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14 : 00·KB-SN Sports)

▲제55회 대통령배 축구대회 결승전(14 : 10·KBS1)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준결승 2차전 <KT&G-KTF>(18 : 50·Xports)

4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1차전<아인트호벤-리버풀>(03 : 30·MBC ESPN)

Large advertisement for '국채리뷰' (National Debt Review)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detailed text about government bond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